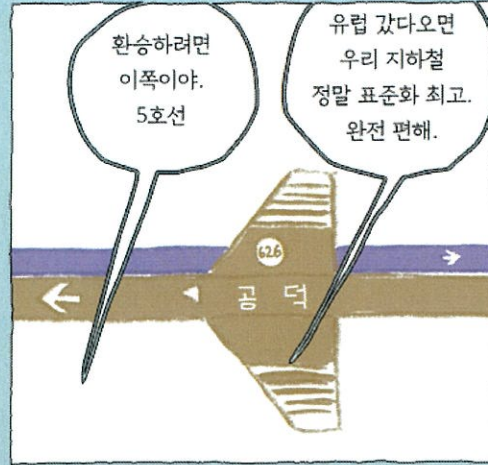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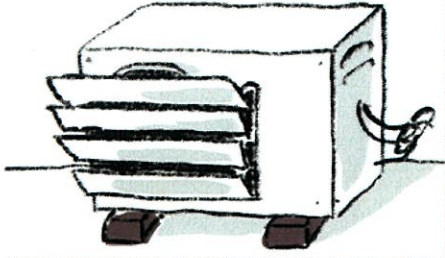


어딘가 있는 이야기 4

김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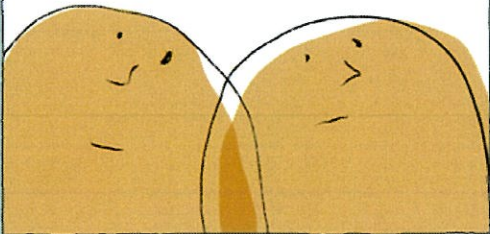
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를
보다가 떠오른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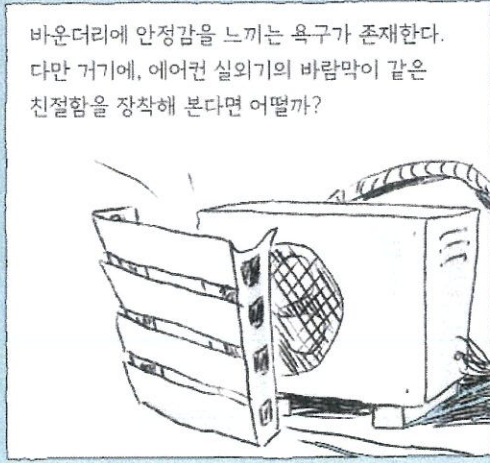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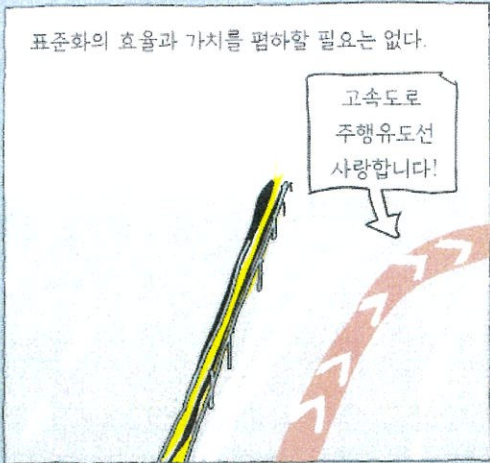


최적의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사는 것에 탁월한 한국 사람들은 '표준화'에 익숙한 듯하다.



표준화의 영향일까? 재미를 넘어 MBTI 과몰입은 관계의 효율성에 따른 바운더리를 긋는 듯하다.





김성희 작가의 주요 작품으로는 「뭉클년」, 「먼지 없는 방」, 「똑같이 다르다」, 「내가 살던 용산」, 「빨간약」, 「오후 네시
의 생활력」이 있다.

글 | 김성희(작가)